

연중 제6 주일

기도서 P. 347 A해

- 제1독서(집 회 15, 15-20)
- 제2독서(고린전 2, 6-10)
- 부 음(마 태 5, 17-37)

# 순정이

발행인	김 환 철
인쇄인	김 불 희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전주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④2935)

□강론



## 물고기가 맑은 물에서는 살지 못하는가?

### 나 궁 렬 신부

물고기의 모양을 보면 그놈이 어느 곳에서 살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다. 보기에도 더럽고 구질구질하게 보이는 놈은 진흙탕 물에서 놀아난 티를 내고 걸쭉하고 먹음직스런 놈은 파아란 대양을 누비며 자라온 삶의 경력을 말해 준다. 어떤 고기를 보면 정상발육을 하지 못하고 기형으로 성장한 것들도 있다. 가끔 또 식탁에 오는 고기 중에 기를 냄새가 물씬 풍기는 놈들도 있다. 이것들은 오염된 환경에서 자란 것들이다.

물고기의 삶이나 인간의 그것이나 마찬가지로 아닐까? 사람의 얼굴은 인생의 경력을 나타내 준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그 얼굴에서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성년이 되면 자기의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격언도 생겼을 것이다. 손거울이라도 꺼내 내 얼굴을 한번 들여다 볼까? 눈동자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내 마음의 거울과 대조해 보자. 차곡차곡 한 구석부터 더듬어 가던 지난 일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얼굴 한 구석을 바라보다 그만 거울을 떨어뜨리고 만다. 상처 받은 지난 일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해서 말이다. 기형으로 성장된 물고기를 보듯 그 때 그 상처의 여운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고 한숨을 쉰다.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독수를 먹으면 그 물고기는 기형이 될 수밖에 없다. 인간도 어느 한 순간 마음속 깊이 독소가 스며들면 기형인이 될 수밖에 없다. 어디 그런 상처가 한 두 번 뿐이겠는가? 얼굴의 구석 구석이 움푹 움푹 그런 상처로 패여 있다. 자신의 얼굴이 무서워 손거울을 내팽개쳐 버린다.

그런들 그런 상처를 잊을 수 있을까? 거울을 드러다 보지 않아도 이제는 풍기는 냄새로 나는 어떤 인물인지 알려지게 된다. 마치 물고기에서 기름냄새가 나듯 말이다. 향수를 뿌린는 없앨까? 내 몸의 일부를 도려내들 그 냄새가 사라질까? 그러나 안심하지. 우리 중에 그런 냄새를 맡을 만한 성중 좋은 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 말이다. 우리 모두에게서 풍기는 독한 냄새 때문에 우리의 교는 모두 그 기능을 상실했다. 이렇게 오염된 우리의 환경이 바로 죄라는 것이 아닐까? 흙탕물처럼 만연된 죄의 세상, 그 속에서 독소에 찌러 허우적 거리는 나, 서로가 내뿜은 죄의 냄새로 무디어진 우리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죄스런 환경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물고기가 맑은 물에서 살지 못한다고 말하며 위안을 삼고 지낸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서도 이런 위안으로 합리화 시킨다.

계명이란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다. 우리 모두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다. 미꾸라지는 살갓에 분비액을 내뿜어 진흙탕에서 자기 생명을 보호한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미꾸라지의 경우처럼 죄스런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또한 오염된 환경을 정화하는 길도 이 길밖에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맑은 물이 아니라 오염된 물이기 때문이다.

“야훼의 법을 따라 가는 사람들, 그 생활 깨끗한 이 행복하다.”



## 신용 협동 조합, 다시 관심을 갖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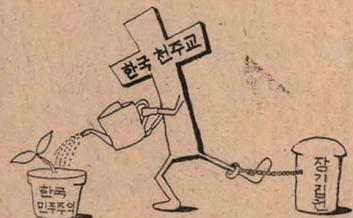
금년은 선거와 인연이 많은 해이다. 대통령 선거인단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아야 한다. 거기가 우리 가톨릭 교회가 뿌리를 내려준 신용 협동조합의 임원도 뽑아야 한다. 무슨 선거든지 까딱 잘못해서 사람을 제대로 골라내지 못하면 고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민이다. 선택이란 항시 그 뒤에 이어지는 기쁨과 고통 때문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선택의 때를 맞아, 지도자의 참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누가 참 지도자인가? 위에서 군림하는 자는 아니다. 제 잇속만을 따지는 자도 아니다. 그를 선택해준 동료들과 더불어 사는 자라야 한다. 제 이익보다는 동료들의 이익에 더 큰 관심을 갖고 봉사하는 자라야 한다. 그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잘 아는, 그 일에 대한 폭넓고 원대한 전망을 제시할 줄 아는 자라야 한다. 결국 지도자는 그 능력과 성품이 제대로 갖추어진 자라야 한다. 그가 신앙을 가졌진 안가졌건간에 동료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라야 한다.

그러면, 지도자를 뽑는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하는가? 적극적인 참여 자세가 필요하다. 구경꾼이 아닌 주인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꼭두각시는 주인이 아니다. 노예도 주인이 아니다. 잘못된 제도라면 뜯어 고칠 수 있는 마음가짐과 결단력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참 주인이다. 제 권리를 지킬 줄 아는 자라야 참 주인이다.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제 편리만을 찾아뒀전에서 있는 자는 참 주인이 아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뿌리를 내려준 신용조합에 대해서도 재평가를 해야 할 때이다. 그 나가는 길이 잘못되고 있지나 않은지, 주인된 마음으로 지켜 보아야 할 때이다.

## 순정이 산책



교황님의 치하

□ **주교단 공동 메시지**

「**장애자는 우리 모두의 형제**」

금년도 “세계 장애자의 해”를 맞이하여 한국 주교단에서는 지난 1월, ① 장애자 문제에 대한 신자 의식 환기와 실질적 도움의 방법을 금년도 사순절 운동 내용에 삼입시켜 교구 차원에서 시행 되도록 하는 한편, ② 장애자의 선교 문제와 복지 문제에 대한 전 교회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금년도에 한해서 5월 17일(주일)을 **장애자 주일** 정하고 선교적 및 복지적 차원의 장애자 문제에 대한 주교단 공동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금년은 유엔이 정한 “심신 장애자의 해”입니다. 이 특별한 해를 맞이하여 먼저 우리 모두가 하느님 앞에서 예의 없이 장애자라는 사실을 생각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느님만이 홀로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백만에 가까운 우리보다 심한 장애자들에게 깊은 관심과 형제애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어느면으로는 우리 가운데에서 알게 모르게 이들에 대한 멸시와 편견을 지녀오기도 하였습니다.

장애자는 우리 그리스도 신자에게는 특별한 형제입니다. 이들을 우리의 가장 가까운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들을 위한 모든 사업에 앞서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소경이 보게 되고, 절름발이가 제대로 걸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게”(루가 7, 22-23) 하실 분이 바로 자신이심을 명확히 말씀하심으로써 이들을 가장 가까운 형제로 여기셨으며, 실제로 이들을 위하여 수 많은 사랑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형제적 사랑으로 맺어진 형제들은 같이 슬픔과 고통, 기쁨과 희망을 나눕니다. 특히 장애자에게 겪어야 하는 슬픔과 고통을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나눈다면 이들의 슬픔과 고통은 반감될 것입니다.

금년은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 정한 “이웃 전교의 해”입니다.

우리들의 가장 가까운 이들과 함께 형제애를 나누다면 우리의 복음선교는 가장 현있는 구체적 증거를 나타내는 복음선교가 될 것입니다.

장애자의 복지는 단순한 동정이나 자선, 구호의 차원을 넘어서 생각하여야 할 분야이기에 복지국가를 건설하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전 반점인 사회 편견의 제거, 법적으로 보장되고 시행되는 일관된 정책, 전문적인 방법을 통한 치료와 재활로 이들이 사회 안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 **틀을 깨**

**물음표(?)의 시작**

아가야 때는 모른다. 그러나 철들 무렵부터 시작하여 삶을 이어 갈수록 꼬리를 감추지 않고 일어나는 것이다.

어느 때는 목을 조여 죽일 듯 하는가 하면 쉽게 풀리기도 한다.

더욱 많이 접하고 잘 해결하는 자를 현인이라하여 따르는 것도, 어른의 말씀에 겸손되어 복종하는 것도 물음표 덕이라하면 과연일까?

우리가 살아가며 부딪치는 여러가지 물음들, 예를 들면 어찌하면 더 잘 살까? 행복하게 살까? 진리란 무엇인가? 등에 접한다. 그때마다 최고의 으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얻으려 노력한다. 어떤 이는 재물에 기준을 둔다. 명예에 두기도 한다. 학생들은 한가지라도 더 알려고 씨름하며, 예술인은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으려 자신의 온 정열을 다 바친다. 종교란 글자 그대로 마루종 아니면 근본종(宗) 즉, 으뜸이나 근본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이는 종교인이 아닌가? 나름대로 으뜸이나 근본을 찾고 있기에 말이다. 그러나 우리 삶의 으뜸을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에 비유하면 잘못일까. 한가지 면만 보고 절대적이라느니 최고라느니 하고 있다면 이는 사람의 자만이라. 한가지 예로 술지의 황룡사 벽화는 완벽하다. 새가 앉으려 다 머리 받쳐 죽을 만큼 말이다. 허나 영원성의 면에서는 실패작이었다는 사실을 겸손되어 인정하면 훌륭한 종교인이다. 그는 이미 인간의 불완전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는 자이고 동시에 참된 으뜸을 찾고자 계속 물음 표시를 가질 수 있는 자에게...

〈박종상 신부〉

합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와 같은 일에 헌신하여 오신 많은 분들, 특히 “하느님의 놀라우신 일을 드러내기 위하여”(요한 9,3) 이들을 위한 형제적 사랑에 종사하여 오신 여러 수도자들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이 이분들의 헌신을 뒷받침해야 할 중대한 의무가 있음을 깨우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잔치를 베풀 때에 오히려 가난한 사람, 불구자, 절름발이, 소경 같은 사람을 불러라. 그러면 너는 행복하다. 그들은 값지 못할 터이지만 의인들이 부활한 때에 하느님께서 대신 갚아 주실 것이다”(루가 14, 13-14)

1981. 1월

한국 천주교 주교단

□ 교우여러분의 가정에 소량도 신속 배달하겠습니다

**한 미 주 유 소**

전화 ② 5669 번

주 최 남 수(아뿔로니오)

(가톨릭 센터 사무장)

전주시 효자동 1가 283번지

**三星物産 전주 특약점**



**위크엔드 Weekend**



**버킹검 Buckingham**



**맥그리거 McGREGOR**

**주니어·아동복**

전주시 중앙동 3가 96-2 **삼화약국 옆**  
전화 ② 4451 **유 율리안나**

## 교구 M.B.W(기초 공동체 목사회) 임원회 열려...

교구 M.B.W 위원회는 10일 오후 5시 교구청 회의실에서 위원회 모임을 갖고 그동안 철회된 M.B.W 활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임원 보강과 81년도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4월에 계획된 교구단위 목사회를 대비, 계획하고 11일부터 원주에서 개최되는 전국 모임에 임원을 파견하는 한편(조정오 신부, 안경례 임원), 3월중에 임원 자체 피정을 갖기로 했다.

새로운 각오와 계획 아래 81년을 노력하려는 교구 M.B.W 위원 활동에 많은 격려와 기대를 가진다.

지도신부: 김준호 신부, 회장: 정주복, 간사: 조정오 신부, 임원: 현유복 신부·조성호·한상갑·김영춘·강기연·안경례

## 농민회 제6차 정기총회 개최

가톨릭 농민회 전주교구 연합회는 오는 2월 18일 오후 1시 가톨릭센터에서 81년도 정기총회를 가진다.

80년도 사업보고와 평가에 이어 81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임원 보선도 갖을 예정이다.

농촌 사회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농촌 현장에서 활동하는 농민회의 보다 큰 발전을 위해 각 분회 대표들의 빠짐 없는 참석을 바란다.

## 동계 주일학교 교리교사 연수회

1981년 새학기를 맞이하여 동계 주일학교 아동 교리교사를 위한 연수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연수회를 통하여 우리 교구내 주일학교 교재를 통일하고자 하오니 많은 협력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연수회 일정

- ◇ 1차 연수회: 1981년 2월 23~25일까지 대상-진주·군산·이리·고산·삼례
- ◇ 2차 연수회: 1981년 2월 26~28일까지 대상-1·5·6·7지구 및 기타 지역

## 「각 본당의 미담, 소식을 기다립니다」

가슴 뿌듯하게 감동적인 이야기, 혼자 알고 있기에 서운한 미담,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알았으면 하는, 여러분의 본당 소식을 보내 주세요.

원고 3~4매, 매주 화요일까지 줄정이 편집실로. <윤정이 편집실>

## 요심이 (395)

원로야당 정치가가  
애기를...



지금 헌법으로 야당이  
정권을 잡는다는것은



하늘의 별따기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집에서 얘기나  
보기로 했네



□ 생화 · 각종화분 · 신부부케  
교우분들, 자주 들려주세요

## 진 선 미 꽃 집

전주극장 골목 전화 ②2628  
범띠도(떡배) · 이 마리아

## 「토 용 탕」

보신 보양 고단위 영양식품  
각종 난치병에 효과가 좋음

※ 토용을 양식하고자 하는 분에게 (양식하는 안내서와 종자를 알선해 드립니다. 종자제공(株) 日本 ミミズ(미미스) 養植協營會 愛知縣 품질보증 지수입하고 있습니다. 무공해 식품을 생산하는데 지력이 농법이 절대 필요 없습니다. 각종, 동물 사료에도 특효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동물 사료로 사용할 때 각종 질병과 빠른 속도로 수익성을 올리고 있습니다.

—연락처—  
군산 토용센터(한일은행 뒤)  
전화 ③ 1636

전주 전동 대건 다방  
(대전선용조합 지하)  
전화 ③ 9740  
유 석 증(스테파노)

## 사원 모집 공고

당사는 수출품 섬유 업체로 금번 사세확장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미싱 기능공 및 보조공을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아 래—

기능공: 〇〇명  
보조공: 〇〇명  
기 간: 1981년 2월 1일~2월 28일  
연 령: 18세 이상  
※ 미싱공은 특별 우대함

## 동양 섬유공업사

대표 박 경 환(마태오)  
전주공장 전화 ③ 1193  
기타 상세한 것은 상기 전화로 문의바람

## 신비의 토롱진액 회소식

그간 저희 업소에서 토롱탕을 복용하신 분들에게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 업소에서는 대학 교수진에 의하여 개발한 토롱진액과 초밀란(버어몬트)를 소개하오니 백전의 애용과 성원을 앙원하는 바입니다  
효능: 저혈압, 간질환, 육식후비만증, 신경통, 고혈압, 당뇨병, 식중독 예방, 현기증, 만성 두통, 기관지질환 등에 효과있는 식품입니다 (장수식품에서)

가격: 토롱탕과 토롱진액 20ml  
4,000원, 토롱탕과 초밀란 15ml  
4,000원

## 전주 토 롱 썬 타

구 성모병원 3층 322호실  
전화 ③ 2301 오예환(바오로)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공지사항

1. 교구 정령 위원회...20일(금) 오후 3시, 주교관 회의실
  2. 단체장 연석회의...21일(토) 오후 2시에 교구청 회의실
  3. 제22대 전교구 주교 중·고 연합회 정기총회...2월 22일(일) 오전 10시, 가톨릭센터에서  
대상-각 본당 회장단 및 임원, 지참물-미사도구 및 각 본당 사업보고서, 계획서 1부, 참가비-1인당1,500원 ※ 후보에 많은 입후보 바라며,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4. 제 4 지구 지구회합...20일(금) 오후 2시, 파티마성당에서
  5. 제 2 지구 울드레아...15일(일) 오후 2시, 월명동성당에서
  6. 농민회 총회 및 피정...2월 18일(수) 오후 2시~19일(목) 정오까지, 가톨릭센터에서  
참가대상-분회장 3명 ※ 참가 못할 분회는 위임장을 보내시기 바람
- ☐ 문학 강좌 안내...2월 21일(토) 오후 7시 30분, 가톨릭센터에서  
주제-시와 생활 공백, 강사-유종호(이대 교수)

(중양)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문정환  
보좌 신부 유종민  
보좌 신부 박인경  
사도 회장 김병구

1. 프란치스코 3회: 오후 2시 강당
  2. 삼지회: 2월 18일 오후 6시 30분 본당 사무실
  3. 혼배조당자 관면상담: 2월 21일(토), 28일(토)  
오후 3시 사회 혼인했거나 혼인하지 않고 동거중인  
인 조당자 친원
  4. 연도대회: 각 신심단체별 참가 접수 3월 8일까지  
대회일-2월 22일(일) 오후 2시 강당
  5. 가정방문: 2월 24일 9시30분-금암동·인후동  
3월 3일 9시30분-진북동·중노송동
  6. 병자방문: 2월 17일 10시
  7. 교무금 신입: 81년도 교무금 신입합시다  
구정합동 위령미사 예율: 617,000원
- ☐ 지난주 봉헌금: 411,020원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김정원  
보좌 신부 박준근  
사도 회장 나충연

1. 제14차 성령세미나 개최: 내일부터~21일까지  
매일 오후 2시~4시까지(접수-16일 오후 1시)
  2. 베소라 성서강의: 매주(화) 저녁 7시30분~9시30분
  3. 수녀님들을 위한 베소라 성서특강: 매주(월) 오후  
2시~4시까지
  4. 지난주에 예비자 봉헌: 20명, 매주일에 예비자 봉헌  
직 있습니다. 다같이 이웃 전교에 노력합시다
  5. 금주의 성령읽기: 구약의 출애굽기 전체
  6. 성령기도회: 매주(금) 오후 2시~4시까지
  7. 교무금 남부의 날: 다음주는 교무금 남부의 날입니다  
80년도 교무금을 속히 완납합시다.
- ☐ 지난주 봉헌금: 229,590원

(덕진)

전화 ②2182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유영도  
사도 회장 양상열

1. 오늘부터 예비자 교리: 2층으로 모이세요  
지도-보좌신부님·채벨라매타
  2. 오늘은 애령주일: 모든 교우분들 애령회에 가입하시  
기 바랍니다
  3. 봉헌봉투는 확인하시고 사용하십시오.
  4. 집주소·전화번호는 사무실로 연락 주셔야
  5. 차주 회합: 집부회·부녀회
  6. 반성회 모임: 19일 저녁 7시 김기형제대,  
젊은이들 많은 참여를
  7. 금주전례: 해설-김은식  
독서-김기·김의준, 기도-정경신  
차주전례: 해설-이철중  
독서-김용환, 소행을, 기도-한인수
- ☐ 지난주 봉헌금: 401,320원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김희남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2. 첫 고해 특별교리: 중교생-신청 2월 16일(부제님)
  3. 복자녀회 월례회: 2월 16일 오후 1시  
기념촬영(한복차림) 옷놀이 강당에서
  4. 사도회 감사 및 재산관리위원 연수회  
16일~17일 김성원·최용구씨
  5. 사무장 연수회: 18일~19일
  6. 복자신협 정기총회: 오늘 오후 1시30분 강당에서  
조합원들 동장과 인장을 지참 바람
- ☐ 지난주 봉헌금: 312,440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한형수

1. 중·고생 연수회: 2월 25~26일까지
  2. 할머니회: 공식미사 후
  3. 60년 영세자 가정방문: 18일부터 수녀님과 함께방문
  4. 주일학교 개학: 토요일 주일학교에 보냅니다
  5. 축! "즐거움의 연유" 쿠리아 탄생: 축하합니다  
단장-김한기, 부단장-한글라라, 서기-차상열, 회  
계-김노아(회합일: 매월 둘째주일 오후 2시)
  6. 다음주 전례담당  
독서-① 박장춘 ② 황인구, 신자들의 기도-이정빈
  7. 성가신봉조합 제 8 차 정기총회: 20일(금) 오후 2시
- ☐ 지난주 봉헌금: 202,715원 교무금: 204,800원

(숲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1. 성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본당 회의실)
  2. 사도회 감사: 재정관리위원장 연수 2월16일 오후2시
  3. 주일학교 아동 졸업식: 2월 21일 오후 2시 강당
  4. 남성 레지오 창설하오니 사도회 임원은 물론이고 뜻  
있는 형제를 2월 16일(월) 오후 7시30분까지 레지오  
회의실까지 나와 주세요
  5. 청년회 성가연습시간 정정: 매주일 오후 6시
  6. 축! 결혼: 2월 22일 오후 2시 전동성당  
신랑-송현섭(이나시오), 신부-김옥경(골롬바)
  7. 다음주 전례담당: 해설-이기호  
독서-① 이기철 ② 장삼, 기도-김중환
- ☐ 지난주 봉헌금: 312,440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병준  
보좌 신부 박준두  
사도 회장 이종두

1. 교리교사 모집: 15일(일) 공식미사 후  
교무실에서 면접 ※ 새학년 교과서 판매  
-부모님 협조 바랍니다
  2. 주일학교 졸업식 및 미사: 22일(다음주) 오후 3시
  3. 교회내 각 단체는 사도회 사무실에 단체현황 제출  
바람
  4. 피미시움: 오후 2시
  5. 장우회 임원개편: 회장-황귀연(가스발)  
부회장-홍철호(달구), 총무-주원철(야고버)  
재무-이성순(금구)
  6. 울드레아: 저녁미사 후  
꾸르실리스타들은 목주, 길잡이 지참하고 참석 바람
  7. 축! 결혼: 신랑-김상경, 신부-이혜숙(엘리사벳)  
시간-2월 15일 12시
- ☐ 지난주 봉헌금: 507,090원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채수현

1. 예비자 환영식: 많은분들을 하느님 품에 안겨주시어  
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 예비자 교리시간 안내  
주일 공식미사 후·저녁미사 후  
평일-목요일 오전 10시, 저녁 7시30분미사 후
  3. 레지오 각 브레시디움 간부 모임  
다음 목요일 저녁미사 후
  4. 수녀원 신축기금 신입하신 분  
김달용(100,000원)
- ☐ 2월 1일 주일금: 120,115원 교무금: 222,500원  
☐ 지난주 봉헌금: 145,000원 어린이헌금: 3,595원  
교무금: 196,000원